

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최대 2GW 계획 입지 개발 목표...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및 수산업 공존, 이익 공유 과업 착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8일 군청 휴양홀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올해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에 맞춰 ▲정부 해상풍력 예비지구의 지정과 ▲공존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고흥군 해상풍력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사업은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수용성을 종합 검토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최대 2GW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개발해 지역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을 확

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산업 전환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남해안 해상풍력 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는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고흥의 미래산업과 정주 여건을 함께 바꾸는 전략사업인 만큼,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인프라를 선



해 고흥이 남해안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월 4일 어민과 수협을 중심으로 출범 예정인 「고흥군 해상풍력 공

강진군,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로 영농 효율성 제고

드론 26대, 중대형 농기계 124대, 지게차 10대 등 537대 지원

강진군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 중대형 농기계, 농업용 지게차, 농업용 드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등 다양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최소화가 목표다.

군은 올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형농기계 219대, 중대형 농기계 124대, 농업용 지게차 10대, 농업용 드론 26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141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12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군이 추진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3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농기계는 소형농기계로 분류하여 구입 단가의 50% 지원하며, 600만원 이상 농기계는 중·대형 농기계로 분류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읍·면을 통해 신청된 농기계는 자체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농업용 드론과 지게차는 영농규모, 친환경 농업 인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소형 농기계는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영농 참여를 확대하고, 중대형 농기계와 지게차는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은 곡물 건조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해 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강진군은 농기계 종합보험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을 강화하며,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은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 최대 80%를 지원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사고 발생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성군과 담양군 공직자들이 고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교차 기부에 동참하며, 따뜻한 연대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茶)의 고장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농수산물 생산지이며, 벌교꼬막을 비롯한 다양한 특산물과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담양군은 대나무 숲과 메타세쿼이아길

보성군-담양군, 고흥사랑 교차 기부로 싹튼 상생의 정

로 널리 알려진 생태·관광 도시로,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전남의 대표 힐링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교차 기부는 두 지역의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고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실천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

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직사회가 먼저 참여함으로써 군민과 국민 전반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담양군과의 교차 기부는 고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간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

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고흥사랑기부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고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새해 복 더하기 신년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보성군에 10만 원 이상 고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네이버페이를 지급한다.

보성/김윤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청소년수련관, 겨울방학 맞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매주 화·수·목요일 「슬기로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슬기로운 겨울방학」은 방송댄스, 스포츠스태킹, 베이킹, 뜨개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무안군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중 과도한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체험 중심의 여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무안군 제공



영광군, 블루베리 전·전정 현장교육 실시

영광군은 블루베리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수확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7일 모아블루베리연합회 회원 재배포장에서 전·전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블루베리 생육 특성에 맞는 전·전정 기술 향상과 수형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모아블루베리연합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블루베리 수형별 전·전정 방법, 수세 조절을 통한 착과 안정 기술, 전정 후 관리 및 병해 예방 요령 등 실제 재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정재욱 소장은 "앞으로도 생육단계별 현장교육을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구례군-구례우체국, 국제우편(EMS)요금 지원 업무 협약

구례군은 지난 26일 구례우체국(국장 박인자)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라남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구례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며, 올해 총사업비 500만 원 규모 내에서 약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원 가구는 횡수에 상관없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례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물품을 발송하면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